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

구판, 신판, 그리고 판판

글_박중서(번역가)

정확히 언제 어디서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저 읽고 싶은 책은 많고 가진 돈은 없었던 대학 시절, 어느 헌책방 한구석에서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과학과인간사, 1980)라는 묘한 제목의 책을 만났다.

낯선 그 책을 선뜻 집어 들었던 까닭은 로맹 가리라는 이름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와의 첫 만남은 《유럽의 교육》을 통해서였다. 행운이었다. 나는 《자기 앞의 생》의 작가 '에밀 아자르'가 아니라 '로맹 가리'를 먼저 만나게 된 것을 두고두고 감사해 마지않는다. 《하늘의 뿌리》나 《연》이나 《새벽의 약속》을 통해서가 아니라 《유럽의 교육》을 통해서 처음 만나게 된 것에 대해서도, 이후 한동안 그의 책을 걸신들린 듯 찾아 읽었다.

초판본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의 표지에는 '전 프랑스 문학상 수상작품집'이라는 부제와 함께 '공꾸르 상' '페미나 상' '비평가 상' '아카데미 프랑세즈 대상' '프랑스 국가문학 대상' 같은 어마어마해 보이는 이름들이 적혀 있다. 뒷면에는 '1945년부터 79년까지'의 '수상작과 문제작 가운데서도 가장 감동적인 작품들을 골라서 수록했다'고 나와 있다. 그래도 여전히 내게 낯익은 이름은 로맹 가리와 미셸 푸르니에뿐이다. 푸르니에란 사람, 솔직히 한 번도 좋아한 적 없었지만, 그래도 《방드르디》와 관계있는 단편 <로빈슨 크루소의 말로>가 이 책에 수록되어 있었으니까.

이후 한참 동안 '절판' 상태에 놓여 있던 이 책은, 무려 15년 뒤인 1994년에 현대문학에서 같은 제목으로 재출간되었다. 초판 1쇄는 그해 9월에, 내가 가진 4쇄는 두 달 뒤인 11월에 나왔으니 제법 인기를 끈 모양이다. 전의 10편보다 더 많은 14편의 단편이 수록되고, 레몽 장이나 르클레지오 같은 낯익은 이름이 추가된 것은 반가웠지만, 내가 지금까지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구판에 대한 언급이 편역자 서문에서조차 빠져버린 건 좀 아쉬웠다. 적어도 나 같은 독자, 그러니까 구판을 읽고 받은 감동을 오래오래 기억하고 있는 독자들에게 최소한 '이는 책'이라도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2001년에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김남주 옮김, 문학동네)라는 책이 새로 출간되었다. 이번에는 과거처럼 편역서가 아니라 로맹 가리 혼자만의 단편집이었다. 나로서 그의 단편집을 번역서로 접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지덕지하는 한편, 일찍이 이 제목을 통해 접할 수 있었던 다른 여러 단편에 관한 기억이 사라져버리게 되었다는 사실에 아쉬움을 느꼈다. 예전과 똑같은 것은 단편 두 개와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라는 제목뿐이었으니까.

로맹 가리의 단편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는 무척이나 황량하고도 모호한 이야기다. 수많은 새들이 바다를 건너 날아오다가 결국 땅에 떨어져 죽어가는 페루의 한 해변, 그곳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발견한다. 여자는 전날 밤 시내에서 벌어진 카니발을 구경하다가 졸지에 세 명의 낯선 남자(아직 해변에 누워 노닥거리는데)에게 납치되어 바닷가에서 욕을 당하고, 날이 새자 바다로 걸어 들어가 자살을 기도하다가 남자에게 구조되어 그의 카페에 발을



● 이 글을 쓴 박중서는

에이전트와 출판사 등 출판계에서 두루 활동했으며 지금은 번역가로 일하고 있다. 역서로는 《전통 매드니스》(세계적 인물은 어떻게 키워지는가) 《미국 최고의 대학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등이 있다.

들여놓는다. 다 죽어가는 새처럼 파르르 떠는 여자에게 남자는 묘한 연민을 느낀다. 곧이어 여자의 남편인 듯한 부유한 중년 남자와 젊은 남자, 그리고 운전기사가 카페로 여자를 찾아온다. 술에 취한 남편은 혼잣말처럼 비정상적인 부부생활에 대한 하소연을 늘어놓고, 그의 비서이자 친구인 듯한 젊은 남자는 듣다못해 그의 뺨을 친다. 곧이어 그들을 따라 나선 여자는 모래언덕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카페를 돌아다보지만, 이미 카페 주인 남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어쩌면 이 소설을 읽고 매료된 독자의 대부분은 다른 무엇보다도 '새들이 날아와 죽는 페루의 해변'이라는 특이한 이미지에 매료된 것이 아니었을까.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이 책을 읽은 사람들끼리만 통하는 암호일지 모른다. 가령 이성복의 시에 등장하는 "그런 날에는 페루를 향해 죽으러 가는 새들의 날개의 아픔을 / 나는 느낀다 그렇다"라는 구절을 보고 나는 얼마나 흥분했던가. 아, 그도 이 단편을 아는구나, 하는 생각에 말이다.

그런데 이 해변, 그리고 두 남녀의 만남에 대해 무수히 많은 해석과 생각이 있을지 몰라도, 글썽, 나로선 모호하다는 생각이 앞선다. 물론 오랜만에 다시 한번 읽으며 새삼스레 깨달은 것도 있다. 가령 예전에만 해도 여자는 단지 불운한 희생자, 그녀의 남편은 아내의 불행을 수수방관하는 변태 노인으로 여겨졌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읽을 때에는 오히려 변태는 그 여자이고 남편이 오히려 희생자인 듯 느껴지는 것이다.

즉 여자는 강제로 납치되어 욕을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이후에 등장하는 남편의 주장(즉 변태성욕을 지닌 여자들을 정상인으로 만들어주는 용한 정신분석의를 만나러 가자고 설득하는)을 떠올려 보면, 오히려 문제를 지닌 쪽은 남편이 아니라 여자인 셈이다. 이른바 "(사건이 끝날 때까지) 네 시간을 기다렸다"는 남편의 말이며, 아침이 되자 태연스럽게 여자를 데리러 오는 일행의 행적이 이를 대변해준다. 어쩌면 여자는 스스로가 그런 열정에 몸을 맡기지 않을 수 없는, 그리고 남자는 스스로가 그런 여자의 열정 앞에 굴복할 수 없는 어떤 사연을 지닌 것은 아닐까.

물론 다음에,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뒤에 또 한 번 읽어보면 그때 가서는 내 생각이 어찌 달라질지 모른다. 어쩌면 카페 주인 역시 그 3인조의 네 번째 동료로서 악행에 가담했으나 시치미를 툭 떴고 있다는 반전이나, 혹은 기억상실증에 걸린 전직 KGB의 일급 킬러였다는 분명한 암시를 어느 행간에서 읽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때까지 이 소설은 내게 여전히 모호한 채로 남아있을 것만 같다.

오랜만에 다시 그 세 권을 뒤적이며, 문득 로맹 가리의 전처였으며 금발 쇼트커트가 매력적이었던 진 시버그가 이 단편을 토대로 만든 영화에 출연했었다는 기억을 떠올린다. Imdb.com에 따르면 이 영화는 로맹 가리 본인이 시나리오와 감독을 맡았다. 러닝타임 96분. 도대체 단편 소설 하나를 갖고 무슨 할 말이 이렇게 많았을까. 누군가가 써 놓은 영화 평을 읽는다. 최악. 더 이상 형언할 말이 없는 최악 중의 최악이라나. 그리고 보면 로맹 가리는 확고부동한 '작가'였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문득 해 본다. 그리고 어쩌면 그 페루의 해안이야말로 '영화감독' 로맹 가리에게는 가장 확실한 무덤이었을지 모른다고 말이다. [E]